

EU의 대 러시아 축산물 수출 동향*

허 덕

러시아는 풍부한 곡물 생산기반과 자국 축산물 생산 기반 정비를 통해 축산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축산물 시장에서 수입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 머리말

최근 세계적인 농축산물 가격상승 요인은 곡물 주요 생산국의 기후 불순에 의한 생산량 감소,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에 의한 식량 및 사료 이용과의 경합 증가를 흔히 들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중국 등 BRICs로 불리는 나라들의 소득상승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량 증가가 농축산물 가격상승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외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이후 루블화 인하조치로 국내 산업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석유 가격 상승을 주 원동력으로 러시아 경제도 회복되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최대 수입 상대국은 EU이며, EU에게도 러시아는 3번째 수출 상대국이다. 여기에서는 축산물의 주요 수출 지역인 EU와 지리적·역사적으로 가까운 면서도 최근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축산물 무역 동향을 소개한다. 아울러 EU·러시아 간 무역의 특징이나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999년 이후 루블화 인하조치로 러시아 국내 산업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석유가격 상승을 주 원동력으로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결과, 러시아의 농축산물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 본 내용은 日本農畜産振興機構, 「畜産の情報(海外編)」, 2008년 4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huhduk@krei.re.kr, 02-3299-4261)

2. EU의 축산물 수출 동향

EU와 러시아간 축산물 무역이라고는 하지만, 러시아가 EU로 수출하는 품목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EU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다. EU의 식육 및 유제품 역외 수출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자. EU 가맹국이 15개국이던 2001년과 러시아와 역사적·지리적으로 연결이 깊은 동유럽 제국 등 10개국이 추가로 가맹하여 25개국이 된 후인 2006년 수출량을 중심으로 비교해 본다. 아울러 돼지고기 및 치즈에 대해서는 EU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도 많아 Eurostat 통계를 중심으로 그 점유율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러시아가 EU로 수출하는 축산품목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EU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다.

식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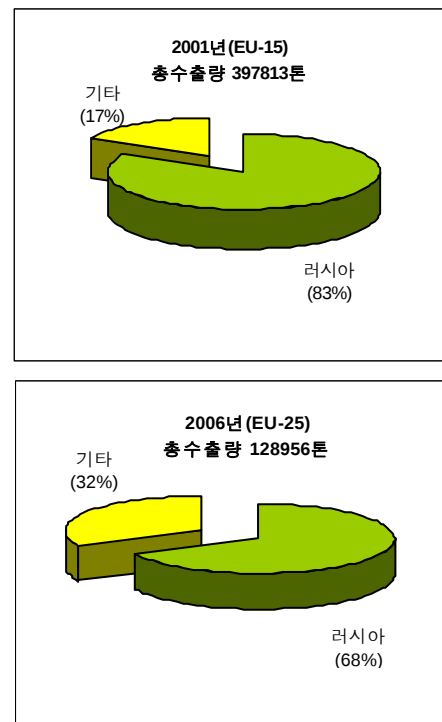
쇠고기(관세 번호 HS 0201 및 HS 0202)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EU의 쇠고기 자급률은 100% 이상이었다. 2000년 말 BSE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 후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이 100% 이상 유지되었다. EU에서 쇠고기 공급의 약 3분의 2는 유용우(乳用牛)에서 공급되는데, 가맹국별 쿼터는 매년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반면 한 마리당 원유 생산량은 증가하여 착유우 사육두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생산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EU는 2003년 이후 쇠고기 순수입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EU의 쇠고기 수출 여력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2001년의 쇠고기 수출량 약 40만 톤에 비해 2006년에는 약 30%인 12만 9천 톤까지 감소하였다. 그 사이 러시아로 수출하던 물량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그 점유율은 아직도 높다. 러시아로의 수출은 2001년에는 80% 이상, 2006년에도 약 70% 정도로 EU 쇠고기 수출의 최대 중요시장이 되고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주요 나라는 독일과 아일랜드이다.

아울러, 그 동안 러시아의 쇠고기 수입량은 낮은 관세 범위를 기본으로 한 제도 하에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EU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의 수입 감소분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 제국에서 보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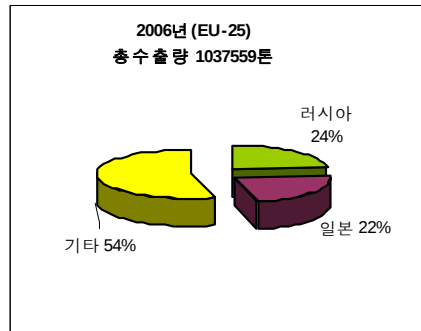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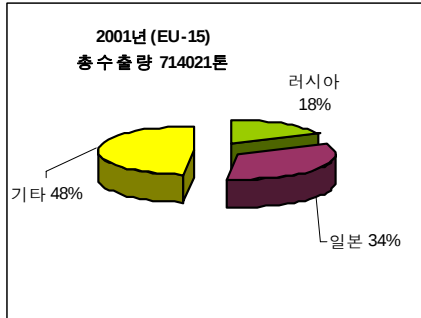
그림 1 EU의 쇠고기 수출량



돼지고기(HS 0203)

EU 돼지고기의 EU 지역 외 수출은 덴마크를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여 왔다. 2001년 돼지고기 수출량이 약 71만 톤이지만 2006년에는 약 45% 증가한 약 104만 톤이었다.

그림 2 EU의 돼지고기 수출량



2001년에는 수출의 약 3분의 1이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러시아로 수출한 점유율은 20%이하였다. 그런데 2006년의 경우 일본으로 수출한 물량은 2001년보다 약간 감소하여 일본 시장 수출 점유율이 22%로 크게 저하되었다. 한편, 러시아 시장에 수출한 물량의 점유율은 24%로 러시아가 최대의 수출지가 되었다. 단, 2006년은 브라질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러시아가 브라질로부터 수입하던 물량이 감소한 만큼 보충하는 형태로, 덴마크 등에서의 수입이 증가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2007년 EU에서 러시아로 수출한 돼지고기 물량은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회복되고 자국의 생산도 확대되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액으로 보면, 2006년은 일본으로 수출한 금액이 약 7억 2천만 유로인데 대해 러시아로 수출한 것은 약 4억 8천만 유로로 여전히 일본이 최대의 수출지역이다.

수출 단가는 2001년 일본으로 수출한 것이 1kg 당 3.75유로, 러시아로 수출한 것은 1.45유로였다. 2006년에는 일본으로 수출한 것이 3.10유로로 낮아진 반면 러시아로 수출한 것은 1.95유로로 상승하고 있어, 일본에 비해 러시아의 구매력 상승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일본시장 수출 점유율은 22%로 크게 저하되었으나 러시아 시장에 수출한 물량의 점유율은 24%로 러시아가 EU 돼지고기의 최대 수출지가 되었다.

표 1 EU의 러시아·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 동향

구 분	EU → 러시아		
	수출량(톤)	수출액(천 유로)	수출단가(유로/kg)
2001(EU 15)	130,150	188,496	1.45
2006(EU 25)	246,290	480,203	1.95
2001/2006	189%	255%	135%
구 분	EU → 일본		
	수출량(톤)	수출액(천 유로)	수출단가(유로/kg)
2001(EU 15)	245,498	920,950	3.75
2006(EU 25)	231,317	718,174	3.10
2001/2006	94%	78%	83%

루블화의 대 유로화 환율(러시아 루블/유로)이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5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1유로당 26.6571 러시아 루블이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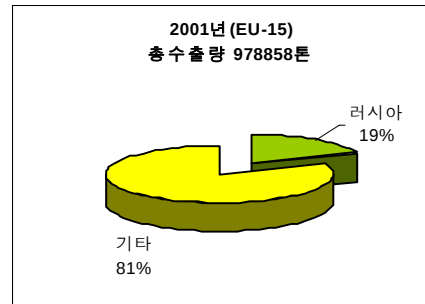
이 2006년 12월에는 34.7316 러시아 루블로 상승하였다.

가금육(HS 0207)

EU가 가금육을 역외로 수출한 물량은 2001년에 약 98만 톤이었던 것에 비해 2006년에는 약 11% 감소한 87만 톤이었다. 감소한 이유는 2001년 당시에는 EU에 가맹하지 않았던 동구 제국으로 수출하던 물량이 2006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2005년 후반 이후 역내·외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수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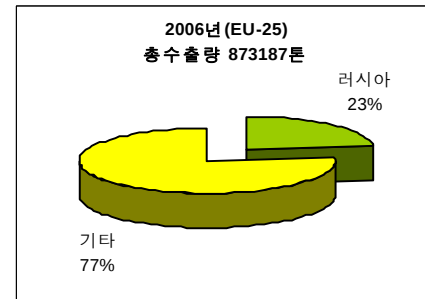
이전에 러시아로 수출하던 물량은 2001년 18만 8천 톤에서 2006년에는 약 8% 증가한 20만 3천 톤이었다. 이에 따라 점유율도 19%에서 23%로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다.

그림 3 EU의 가금육 수출량



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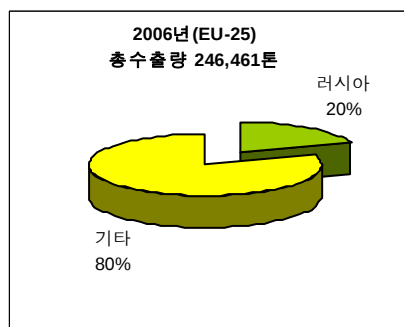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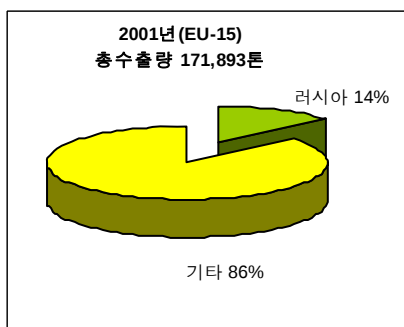
세계 유제품 수출시장에서 EU산의 비율은 버터나 치즈에서는 약 40%, 탈지분유나 전지분유에서는 약 30% 정도 되는 등 EU는 주요 수출지역이다. 수출지를 보면 최근 러시아의 유제품 수입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단 아직까지는 러시아로 수출되는 분유는 많지 않다. 유제품 무역 중 일본이 EU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버터나 치즈의 수출 동향은 아래와 같다.



버터(HS 0405)

EU의 버터 역외 수출은 2001년 수출량 약 17만 톤 정도에서 2006년 24만 6천 톤으로 순조로운 증가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EU의 최대 수출지로, 같은 기간 수출량이 2만 3천 톤에서 5만 톤으로 배증하였으며, 2006년의 점유율은 약 20% 정도이다.

그림 4 EU의 버터 수출량



러시아는 EU의 최대 버터 수출지로, 같은 기간 수출량이 2만 3천 톤에서 5만 톤으로 배증하였으며, 2006년의 점유율은 약 20% 정도이다

치즈(HS 0406)

2006년에는 일본으로의 치즈 수출량이 2001년 보다 약간 감소하여 점유율도 8%로 떨어졌지만, 러시아로의 치즈 수출은 2.6배 가까이 증가하여 점유율은 27%로 최대의 수출지가 되었다.

치즈의 EU 역내 소비는 변동이 별로 없으며 앞으로도 생산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량은 역외에서의 수요호조를 배경으로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는데, 2001년 약 47만 톤에서 2006년 5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수출지 점유율을 보면, 2001년에는 러시아로의 수출이 일본으로의 수출에 비해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10%를 조금 넘었다. 2006년에는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2001년 보다 약간 감소하여 점유율도 8%로 떨어졌지만, 러시아로의 수출은 2.6배 가까이 증가하여 점유율은 27%로 최대의 수출지가 되었다. 수출 단가는 돼지고기에서처럼 큰 변동은 아니지만, 일본 수출시 단가는 러시아 수출단가보다 약 30%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림 5 EU의 치즈 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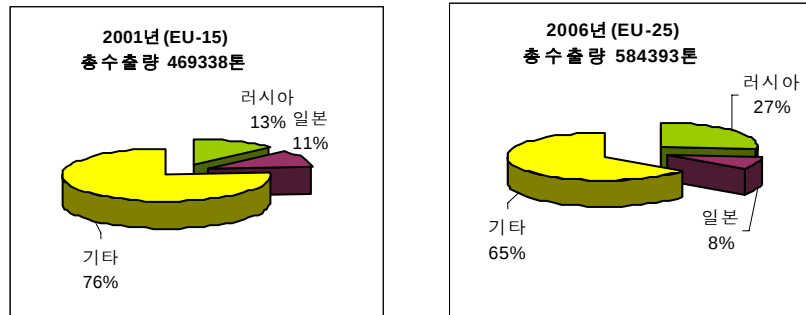


표 2 EU의 러시아·일본으로의 치즈 수출 추이

구 분	EU → 러시아		
	수출량(톤)	수출액(천 유로)	수출단가(유로/kg)
2001년	59,833	172,428	2.88
2006년	157,784	431,915	2.74
2001/2006	264%	250%	95%

구 분	EU → 일본		
	수출량(톤)	수출액(천 유로)	수출단가(유로/kg)
2001년	51,144	189,411	3.70
2006년	48,098	176,311	3.67
2001/2006	94%	93%	99%

3. EU-러시아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축산물 수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러시아로의 수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특히 일본과의 경합 관계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돼지고기다. 여기에서는 특히 앞으로 EU에서 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둘러싼 각종 사정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러시아의 생산 및 소비 동향

러시아에서는 최근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소비도 순조롭게 확대하고 있다. 소비확대에 따라 생산량도 확대되고 있다. 영국 식육가축위원회(MLC)의 예측에 의하면, 2008년에도 소비량의 약 1/3은 수입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표 3 러시아의 돼지고기 생산·소비의 동향

단위: 천톤

구 분	2006년	2007년(잠정)		2008년(추계)	
		계	전년비	계	전년비
생산량	1,805	1,880	104.2%	2,000	106.4%
소비량	2,637	2,730	103.5%	2,920	107.0%

자료: MLC

러시아에서는 최근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소비도 확대되고 있다. 영국 식육가축위원회(MLC)의 예측에 의하면, 2008년에도 소비량의 약 1/3은 수입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독일 시장가격정보센터(ZMP)의 분석에 의하면, 러시아에서도 사료가격 상승이 심각하여 러시아 돼지고기 생산의 약 반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생산을 정지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2008년도 돼지고기 생산은 2006년보다 크게 증가했던 2007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생산 증가의 배경으로는 규모 확대나 생산의 근대화 등 활발한 투자와 더불어 유전자원의 적극적인 수입 등에 의한 생산성 개선을 들고 있다. 2005년 이후 국가사업으로 EU 가맹국 등에서 번식용 생우나 생돈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수요확대를 보충하기 위한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를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것으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2007년에는 생돈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출국인 영국에서 같은 해 8월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MLC 관계자에 의하면 구제역 발생이 없었다면 2007년의 수출두수는 2006년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수출 재개를 위해 러시아 측과 교섭 중에 있다고 한다.

덴마크의 러시아로의 번식용 돼지 수출두수 감소는 트럭에 의한 자돈의 장시간 수송이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덴마크 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주요 수송업자가 수송을 중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덴마크의 수출두수 감소는 트럭에 의한 자돈의 장시간 수송이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덴마크 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주요 수송업자가 수송을 중지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표 4 EU가맹국에서 러시아로의 번식용 돼지 수출 동향

단위: 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1-10월)
영국	11,213	29,038	6,808
폴란드	9,376	8,821	20,716
덴마크	2,470	13,269	1,499
프랑스	661	2,652	8,114
리투아니아	159	3,453	1,222
헝가리	0	4,018	3,057
EU 합계	24,114	61,957	42,000

주: 2007년은 1-10월의 수출두수

자료: EUROSTAT

러시아의 수입 동향

MLC의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의 최대 돼지고기 수입처는 브라질이다. 단, 브라질에서 2005년 말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2006년 브라질에서 수입한 물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 감소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덴마크나 미국에서 수입을 증가시켰다. 2007년에는 다시 브라질에서 수입을 회복하였고, 이것이 덴마크에서의 수입 감소로 연결되었다.

표 5 러시아의 돼지고기 수입 동향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1-6월)	
				계	구성비	계	구성비
수출량 (천톤)	브라질	256.1	397.7	233.3	37.3%	141.2	51.3%
	덴마크	27.5	33.0	10.7.1	17.1%	33.9	12.3%
	미국	17.7	29.7	68.4	10.9%	27.7	10.0%
	캐나다	7.6	10.3	65.0	10.4%	29.8	10.8%
	독일	25.2	19.4	43.7	7.0%	12.3	4.5%
	합계	455.3	562.9	625.7	100.0%	275.2	100.0%

자료: NLC

EU의 생산·수출 동향

2007년 후반부터 역내 지육가격은 전년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2007년 EU의 돼지고기 생산사정은 높은 가격을 기록하였던 2006년 이후 2007년 후반의 돼지 지육가격이나 자돈 가격 침체와 더불어 사료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구주위원회는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0월 29일, 2004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민간재고보조(APS)를 실시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97,615톤의 돼지고기가 시장으로부터 격리되어 최대 5개월 동안 보관되었다. 11월 30일에 지육가격의 하락은 멈추었지만 APS에 대해서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판단하여 수출보조금을 재개하였다. 아울러 2008년 2월 돼지고기관리위원회는 APS 보관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하는 변경안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5-6월을 중심으로 시장에 방출될 예정이었던 보관 돼지고기는 여름철 이후에 방출될 전망이다.

2007년 1~10월의 돼지고기 수출량을 보면, 주된 수출지인 러시아, 일본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 중 러시아로의 수출 감소는 2006년 브라질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브라질에서 수입하던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이를 보충하는 형태로 EU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2007년에 들어서 브라질로부터의 수입량이 회복되어 이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07년 EU의 돼지고기 생산사정은 돼지 지육가격이나 자돈 가격 침체와 더불어 사료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구주위원회는 10월 29일, 2004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민간재고보조(APS)를 실시하였다.

그림 6 돼지 지육가격 추이(EU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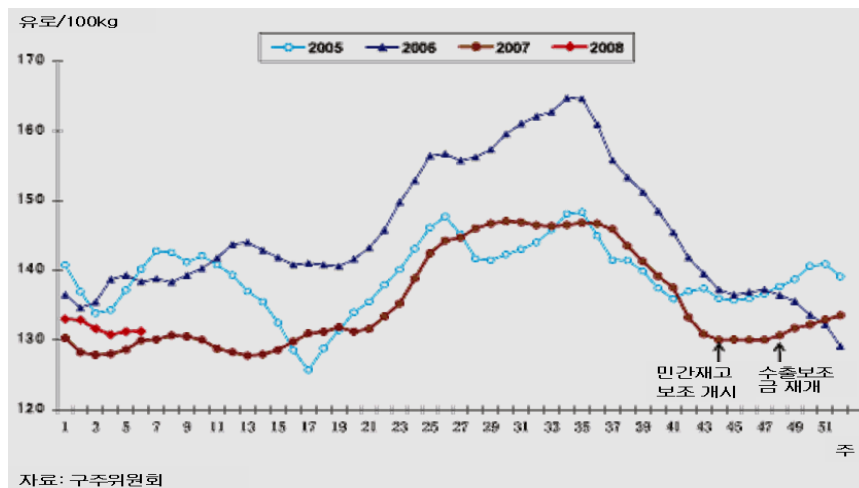


그림 7 EU의 자돈 평균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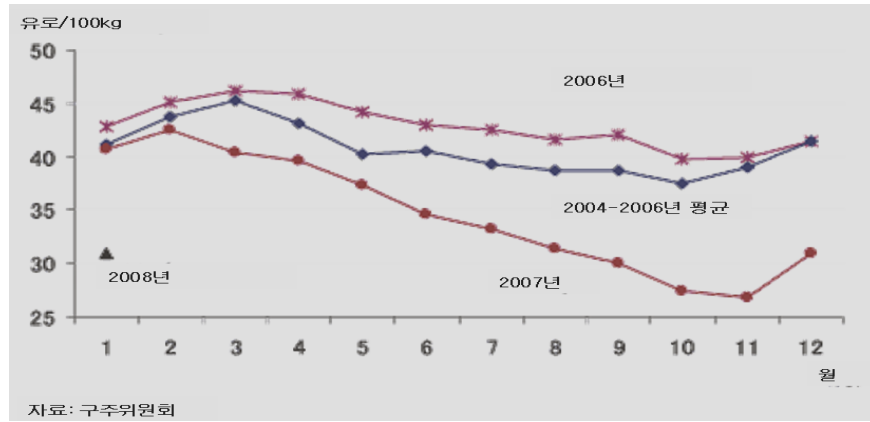


표 6 EU-25의 돼지고기 수출 동향

단위: 천톤

구 분		2006년(1-10월)	2007년(1-10월)	증감(%)
수출량	러시아	194.9	180.1	92.4
	일본	192.5	185.9	96.6
	한국	101.2	107.1	105.8
	중국(홍콩 포함)	27.5	54.3	197.5
	미국	37.4	36.4	97.3
	수출량 합계	839.8	731.9	87.2

자료: EUROSTAT

표 7 덴마크의 돼지고기 수출 동향

단위: 천톤

구 분		2006년(1-10월)	2007년(1-10월)	증감(%)
수출량	러시아	86.0	70.6	82.1
	일본	146.7	132.6	90.3
	한국	16.4	16.0	97.6
	중국(홍콩 포함)	2.9	7.4	255.2
	미국	30.5	31.5	103.3
	수출량 합계	323.6	294.6	91.0

자료: EUROSTAT

MLC의 전망에 의하면, 2008년 돼지고기 생산 및 수출량은 모두 2007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 8 EU-27의 돼지고기 수급의 추이

단위: 천톤, %

구 분	2006년	2007년		2007년(1-6월)	
		계	전년비	계	전년비
생산량	21,944	22,479	2.4	22,366	-0.5
소비량	20,491	21,049	2.7	20,957	-0.4
수입량	16	20	25.0	21	5.0
수출량	1,469	1,450	-1.3	1,430	-1.4

주: 2006년은 실적, 2007-2008년은 잠정 및 전망치, 단위는 자육환산 기준
자료: MLC

또한 2007년 7월에 공표된 구주위원회의 중기 전망에 의하면, 2014년까지 생산은 정체 또는 미증, 수출량은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7년 7월에 공표된 구주위원회의 중기 전망에 의하면, 2014년까지 돼지고기 생산은 정체 또는 미증, 수출량은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9 EU의 돼지고기 수급의 전망

단위: 천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산량	22,049	21,972	22,049	22,232	22,367	22,363	22,426	22,557
수입량	34	38	38	38	38	38	38	38
수출량	1,291	1,225	1,217	1,200	1,187	1,173	1,171	1,154
소비량	20,792	20,785	20,870	21,069	21,218	21,228	21,293	21,440

주: 단위는 자육환산 기준임
자료: 구주위원회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in the European Union 2007-2014'

4. EU 각국의 관계자가 본 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 · 투자

앞에서는 EU-러시아 간 돼지고기 무역에 관계된 양국의 돼지고기 수급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여기에서는 EU의 식육 관계자가 보는 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의 특징이나 전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덴마크의 견해

EU 돼지고기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덴마크는 수출량의 약 1/2을 일본으로, 약 1/4을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덴마크의 주요 수출지이다. 덴마크 돼지고기 수출기구연합(DS)의 러시아와의 돼지고기 무역에 대한 견해를 소개한다.

일본은 수입의 대부분이 로인 등 ‘뼈 없는 부분육’인데 비해, 러시아는 포어엔드 등 일본이 별로 수입하지 않는 부위의 수입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돼지고기의 특징은 포어엔드(지육 반쪽의 앞부분)의 비율 및 식용 설육(HS0206)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과 러시아가 덴마크에서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의 부위 구성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일본은 수입의 대부분이 로인 등 ‘뼈 없는 부분육’인데 비해, 러시아는 포어엔드 등 일본이 별로 수입하지 않는 부위의 수입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러시아로 수출되는 물량 중 2001년과 2006년의 구성비를 비교하면, 포어엔드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일본이 많이 수입하는 ‘뼈 없는 부분육’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뼈 없는 부분육’에 대한 경합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일본 및 러시아가 덴마크에서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의 부위 변화

단위: 천톤, %

HS	부위명	일본				러시아			
		2001		2006		2001		2006	
		수출량	구성비	수출량	구성비	수출량	구성비	수출량	구성비
02032110	지육·지육반쪽	0.0	0.0	0.0	0.0	0.2	0.4	0.5	0.5
02032211	뒷다리살(뼈있는 것)	0.0	0.0	0.0	0.0	2.1	3.5	5.2	4.9
02032219	어깨살(뼈있는 것)	0.1	0.0	0.0	0.0	6.5	10.7	0.2	0.2
02032911	포어엔드	0.2	0.1	—	0.0	19.5	31.9	14.8	14.0
02032913	등심(뼈있는 것)	4.0	1.8	1.9	1.1	3.2	5.3	0.5	0.4
02032915	뱃살(뼈있는 것, 뼈없는 것)	5.6	2.6	5.4	3.1	0.2	0.3	4.3	4.1
02032955	뼈없는 부분육(뱃살제외)	209.1	94.6	165.4	94.2	18.0	29.4	59.7	56.6
02032969	기타	0.8	0.4	0.0	0.0	9.4	15.3	17.2	16.3
	합계	220.9	100.0	175.5	100.0	61.3	100.0	105.4	100.0

자료: 덴마크 통계국

브라질산 수입 증감의 영향에 따라 2005년 이후 러시아로 수출하는 덴마크 돼지고기 물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덴마크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돼지고기는 최근 몇 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의 증감이다. **브라질산 수입 증감의 영향에 따라 2005년 이후 러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에는 러시아가 브라질의 주요 생산주인 산타카타리나 주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해금할 것으로 전망되어, 덴마크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물량 확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의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은 인정시설에서의 가열 제품만이 인정되고 있다.

앞으로 주시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러시아의 자국 생산 동향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의 증산에 힘을 쏟고 있어, 만일 러시아의 자급률이 향상된다면 결과적으로 수입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 브라질과의 관계는 러시아 시장에 있어서 저가격 부위는 브라질산, 고가격 부위는 덴마크를 비롯한 EU산으로 분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 분석기관의 러시아 돼지고기 산업 투자 여부에 대한 견해

네덜란드 워닝겐 대학 산하의 분석기관인 LEI는 러시아나 동구 제국의 사료생산에서부터 돼지고기 생산·판매에 이르는 돈육산업에 네덜란드 자본의 투자 여부를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 러시아 투자는 법적 측면에서는 불투명하고, 돈육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다.

리스크 요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재 러시아의 돼지고기 생산에 대한 투자에는 석유·가스 회사 등의 자금도 혼재되어 있는데, 그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기적인 투자에 알맞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는 돼지고기 생산에 대하여 자금을 향상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워닝겐 대학 산하의 분석기관인 LEI는 대 러시아 투자는 법적 측면에서는 불투명하고, 돈육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다.

5. EU의 대 러시아 돼지고기 수출 증가 가능성

EU의 돼지고기 생산 및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거의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EU로부터 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은 주로 러시아 측의 수급을 배경으로 하는 수입동향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의 수입동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선 우선 단기적으로 브라질로부터의 수입동향과 향후 관세제도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들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08년에는 브라질의 주요 생산지에서 수출이 해금될 것으로 전망되어, EU에게는 수출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후자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는 관세범위 제도에 의해 대폭적인 증가가 전망되지는 않지만, 빠르면 금년 중에 WTO에 가맹이 예상되는 러시아가 2010년 이후 돼지고기의 관세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현시점에서는 불투명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돼지고기 수요와 생산 동향이 큰 요인이 된다. 향후 경기 동향이나 생산 동향 등에도 좌우되는 부분은 있지만, 러시아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내의 생산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에 의해 EU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좌우될 것이다.

러시아의 수입동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선 우선 단기적으로 브라질로부터의 수입동향과 향후 관세제도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들 수 있다.

6. 맺음말

러시아는 지금까지 EU로부터 축산물 수입을 확대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자국의 생산 기반 정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의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수입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시나리

러시아의 축산물
수급의 가장 유력
한 시나리오는 장
기적으로 축산물의
자급률 향상을 도
모할 수 있게 되어
수입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수
입을 전제로 하는
수급의 안정이 아
니기에 축산물의
자급률 향상에 의
한 수급 안정을 추
구해야 한다.

오는 장기적으로 축산물의 자급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수입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이유로는 첫째, 러시아는 풍부한 곡물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어 대두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자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자국 생산기반 정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 돼지 등 유전자원의 도입과 더불어 유럽 등의 선진적인 사육관리기술을 채용하고 있다. 영국 전문가에 의하면, 러시아의 젖소는 평균 연간 6천 킬로그램 정도의 산유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육관리기술이 아직 낮아 실제로는 연간 3천 킬로그램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축산물의 생산증가를 위한 잠재 능력도 이미 가지고 있다.

만일 러시아가 축산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면, 세계 축산물 시장에 있어서 수입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존재감은 적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축산물의 일정량을 앞으로도 수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식량수급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시나리오이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수입을 전제로 하는 수급의 안정이 아니기에 결국 우리는 축산물의 자급률 향상에 의해 수급이 안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